

龜旨歌型の呪歌와呪術行爲

– 首露王說話와 〈東明王篇〉의 動物詛呪에 관하여

Magical Chants and Animal Spirits

저자 (Authors)	鄭璟喜 Kyong-Hee Chung
출처 (Source)	민속학연구 , (1), 1994.08, 139-146 (8 pages) Korean Journal of Folk Studies , (1), 1994.08, 139-146 (8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립민속박물관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62057
APA Style	鄭璟喜 (1994). 龜旨歌型の呪歌와呪術行爲. 민속학연구, (1), 139-14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10/15 11:0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龜旨歌型的 呪歌와 呪術行爲

-首露王說話와 <東明王篇>의 動物詛呪에 관하여-

鄭 璟 喜*

목 차

- I. 머리말
- II. 龜旨歌와 海歌에 공통된 原形
- III. 朱蒙王의 ‘動物詛呪’
- IV. 맺음말

I. 머리말

고대의 문화현상 가운데 ‘龜旨歌’는 그 독특한 내용 때문에 일찍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梁柱東이 그의 《高歌研究》(증보관, 1954년)에서 龜旨歌를 가리켜 ‘샤만적 관념을 전제로 한 呪術的’ 목적을 가진 것으로 규정한 이래, 대체로 문학사적 내용분석이 주된 연구의 흐름이었다.

이 짙막한 글은 이러한 관점과는 달리 龜旨歌를 ‘왕권의 정당화체계’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분석하여 본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문명발전사상 지금까지 관심이 주어지지 못한 ‘動物詛呪’라는 특이한 문화현상이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 前 한국일보 論說委員

II. 龜旨歌와 海歌에 공통된 原型

《三國遺事》에 전해지는 <駕洛國記> 중 始祖 首露王의 天降說話에는 아직도 시원스럽게 解讀되지 못한 수수께끼가 남아 있다. 이른바 ‘龜旨歌’로 알려져 있는 노래와, 이 노래를 중심으로 하는 아마도 종교사적인 의미가 담긴 듯한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가 하는 의문이다.

아홉사람의 추장들[九干]이 龜旨峰에서 창업주를 맞기 위해 흠을 파면서 불렀다고 해서 오늘날 ‘龜旨歌’로 통하는 이 노래는 겨우 17자의 길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駕洛國記> 중 이 대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龜旨에서 무엇을 부르는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삼백명이 이곳에 모였다.
사람의 소리는 나는 듯 하되 그 형상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났다.
“皇天이 나에게 명하기를 이곳에 와서 나라를 새롭게 하여 임금이 되라(惟新家邦 爲君后)하여 이곳에 내리려 한다. 너희들은 산봉우리 흠을 파면서 노래하기를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龜何龜何 首其現也 若不現也 燔灼而喫也)’고 하라. 노래하며 춤추면 대왕을 맞이하여 기뻐 될 것이다” 九干들이 그 말대로 하며 우러러 보니 보라빛 줄이 하늘에서 내려와 땅에 닿아2)(하략)

이 대목을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필자가 前稿에서 지적한 것처럼 首露王의 天降說話가 ‘東明王型說話’의 하나라는 점이다. 동명형설화란 북부여 始祖東明王의 天降說話와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의 일련의 고대왕국 시조설화를 가리킨다. 고무려의 朱蒙說話나, 신라의 赫居世와 金闕智의 神異스런 탄생설화가 모두 ‘동명형설화’이다. 이들 동명형의 始祖天降說話는 始祖가 天孫이면서, 동시에 ‘물의 신령’으로서의 권능을 가졌음을 상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수로왕의 경우 바다 건너에서 온 許后가 물을 지배하는 동명형 시조의 권능을 상징하고 있다3).

한마디로 말해서, 首露王설화는 기본적인 구성에 있어서 동명형의 시조설화로서 이들 일련의 시조설화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딱 잘라 해석하기 어려운 수수께끼의 노래가 들어 있어 수로왕친강설화를 신비의 베일로 가리고 있다.

뜻을 짐작하기 어려운 이 노래와 관련해서 우선 ‘龜旨’라는 산봉우리 이름과 노래에 나오는 ‘거북’이 어떤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필자가 前稿에서 ‘龜旨’라는 지명이 전국의 古地名에서 적지 않게 보이는 ‘九都 또

2) 《三國遺事》에는 <駕洛國記>가 고려의 文廟朝(1047~1082) 때인 大康年間(1075~1084)에 지어졌다고 했다. 따라서 1075년에서 1082년까지 7년 사이에 고문헌을 再錄한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龜旨歌의 해석에 관해서는, 李丙燾 譯, 《三國遺事》(1973, 大洋書籍), 199쪽 (原文 211쪽) 참조.
3) 鄭境喜, 1983, <東明王型說話와 古代社會>, 《韓國古代社文化研究》, (1990, 일지사), 120~155쪽. 首露王에 관해서는 141쪽을 참고바람.

는 仇知계열의 地名'의 하나로 추정할 바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丸都城 아니면 九都城으로 표기되어 온 고구려의 都城도 이 계열에 속하는 지명으로 '九都城'쪽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명들은 龜旨峰의 예로 볼 때 天孫임을 주장하는 정치적 군장들과 관련된 정치=종교적 聖地였을 것이다⁴⁾. 따라서 '龜旨'라는 산의 이름을 '仇知'와 같은 소리의 또 다른 漢子를 빌어서, 그것도 首露王天降說話에 나오는 노래의 '거북'에 일치하는 '龜'자를 택했을 것으로 보기로 한다.

우리의 문제는 거북을 테마로 하는 노래 자체이다. 그러나, 이 수수께끼를 푸는데 단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단서는 선뜻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창엽의 영웅을 맞이하는데 왜 하필 거북이 등장하고, "머리를 내놓으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확실치 않다. 그러나, 다행히 龜旨歌와 그 구조가 같은 노래가 또 하나 《三國遺事》에 남아있다. 그것은 '水路夫人'조에 보이는 노래이다. 이 가사는 '獻花歌'라는 鄉歌 때문에 일찍이 주목되어 온 유명한 기사이다. 이 기사에 龜旨歌와 비교되는 문제의 노래는 '海歌'라는 이름으로 되어있다. '海歌'는 바다속 龍에게 납치돼 간 水路부인을 되찾기 위해 부른 것이었다. 그것을 龜旨歌와 비교해보면 두 노래가 불리워진 상황과, 노랫말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龜旨歌는 九干을 중심으로 2~3백명이 峰上集會를 하면서, 그리고 "산봉우리에서 흙을 파면서 (掘峰頂撮土)" 노래를 불렀다. 한편 '海歌'는 臨海亭의 '境內의 백성(界內民)'을 모아 노래를 부르고 강 언덕을 장대로 쳤다(以杖打岸)"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고 땅을 파거나 막대로 치면서 불렀다는 공통점이 있다.

둘째, 龜旨歌와 海歌의 내용이 구조적으로 같다. 비교분석을 위해 海歌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거북아 거북아 水路를 내놓아라. 남의 부녀 빼앗아 간 죄 얼마나 큰가.
네 만약 거역하여 내놓지 않으면 그물(을 넣어)로 잡아 구워 먹겠다.”
(龜乎龜乎 出水路 掠人婦女 罪何極 汝若悞逆不出獻 入網捕掠燔之喫)⁵⁾

龜旨歌가 모두 17자인데 비해 海歌는 28자이다. 그만큼 海歌의 내용이 많지만, 기본적 구조는 龜旨歌와 같다. 노래의 대상이 두 노래 모두 거북이고,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기본 골격이 똑 같다. 모두 17자의 龜旨歌보다 11자가 많은 海歌에는 龜旨歌에서 볼 수 없는 세 마디가 보인다. ① "남의 부녀를 빼앗아 간 죄 얼마나 큰가" ② "네 만약 거역하여" ③ "그물로 잡아"가 곧 그것이다. 이들은 노래를 부른 군중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는 기본 골격을 보완하는 修辭學的인 보충일 뿐이다. 이 두 노래의 기본 골격은 "거북아 거북아 (首 또는 水路)를 내놓아라 (現 또는 出). 만약 내놓지 않으면 구워

4) 鄭璟喜, 1985, <九都城考>,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 (1990, 일지사), 156~167쪽. 龜旨峰에 관해서는 159, 161, 167쪽, 註 16 참조

5) 李丙燾 역, 앞의 책, 151쪽 (原文 152쪽) 참조

먹겠다”는 것이 된다.

다만 龜旨歌는 거북에게 ‘머리(首)’를 내놓으라고 한 데 대해, 海歌는 ‘수로’를 내놓으라고 한 것이 다르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두 노래 모두 주인공이 ‘수로’라는 사실을 주목하기로 한다. 漢字로 首露와 水路이긴 하지만, 두 이름의 소리가 같다는 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龜旨歌와 海歌에 공통된 어떤 原型이 변화없이 그대로 반영된 현상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두 주인공의 이름이 같은 것임을 뜻하고, 적어도 두 노래가 같은 유형의 동질성을 띤 노래임을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사실일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 龜旨歌가 거북에게 ‘수(首)’를 내놓으라고 한 것처럼, 海歌는 ‘水路’를 내놓으라고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두 노래의 동질성에 비추어 본다면 龜旨歌도 ‘首露’를 내놓으라고 했을 것이다. 또 “구워 먹겠다”는 위협·저주의 전제가 “수로를 내놓지 않으면”인 만큼 당연히 ‘수(首)’가 아닌 ‘首露’라야 할 것이다. ‘露’자가 빠진 것은 刊誤이거나, 혹 의도적인 變改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다.

결국 龜旨歌나 海歌는 하나의 공통된 原型을 반영하고 있고, 두 노래에 공통된 최소한의 原型은 17자의 龜旨歌쪽이 될 것이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수로를 내놓으라”고 추정해서 ‘首’ 다음에 빠진 ‘露’자를 추가하면, 그 原型은 18자가 된다. 그래서 龜旨歌와 海歌를 ‘龜旨歌型’의 노래로 규정하기로 한다.

Ⅲ. 朱蒙王의 ‘動物呪呪’

거북을 대상으로 부른 ‘龜旨歌型’ 노래는 그렇다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이제 규명되어야 될 과제이다. 다시 말해서 龜旨歌型 노래의 정체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다. 그러나, 그 原型的 노랫말이 불과 17자 또는 아마도 18자에 지나지 않는 만큼 이러한 의문을 구명하는데 세삼 노랫말의 문학적 내용분석에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龜旨歌型 노래가 어떤 주관적 의도에서 불리어졌고, 그 기대되는 기능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문제제기로부터 접근을 시도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龜旨歌型 노래는 《三國遺事》에 전하는 두 예 모두 歌唱군중의 소원성취를 위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龜旨歌는 창업주의 출현이, 海歌는 납치돼 간 수로부인의 救出이 가창자들의 목표하는 소원이었다. 龜旨歌型 노래의 기본적인 특징은 거북을 “구워 먹겠다”고 위협·저주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위협은 거북에게 창업주를 내리게 하거나, 용에 납치된 ‘姿用絶對’의 미녀를 구출해낼 수 있을만한 신이스런, 또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는 전제밑에서만 성립된다.

결국 龜旨歌型의 노래는 靈物을 위협·저주함으로써 소원을 이루자는 呪術行爲의 방편으로서의 ‘呪歌’라고 할 수 있다. 거북과 같은 동물을 위협·저주함으로써 소원을 이루자는 주술행위는 우리 역사상 꽤 古形의 문화로 존재했던 것 같다.

동물을 위협·저주함으로써 주술적으로 목적을 이룬 또 다른 예가 고려때 李奎報(1168~1241)의 <東明王篇>에 남아있다. 李奎報의 시대까지 남아 있었던 《舊三國史

》의 <東明王本紀>가 인용돼 있는 <東明王篇>에 龜旨歌型的 呪歌와 엇비슷한 이야기가 보인다는 것은 하나의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朱蒙王이 松讓王이 沸流國을 복속시키는 정복과정에 보이는 이 대목은 다음과 같다.

동명이 西狩할 제 / 눈빛(雪色) 노루 만나 잡아 / 蟹原에 거꾸로 매달고
저주하여 이르기를 / 하늘이 비류국에 비를 내려 / 그 나라 漂沒케 않으면
너를 결코 풀어주지 않겠다 / 너는 나를 도울지어다.⁶⁾

주몽왕이 위협·저주로 노루가 슬피 우니 그 울음소리가 ‘하늘(天=天帝)’의 귀에 들리고, 비가 7일간 쏟아져 결국 비류국이 항복한 것으로 되어 있다. 龜旨歌型的 呪歌가 거북을 위협·저주의 대상으로 삼은 것과 달리, 주몽왕은 노루를 위협·저주해서 비류국을 정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물을 저주해서 목적을 달성했다는 呪歌로서의 공통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주몽왕의 노루 저주도 龜旨歌型的 呪歌와 그점에 있어서 같은 것이다.

이로써 우리의 고대에 동물을, 적어도 확인된 것으로는 거북이나 노루를 靈物로 생각하고, 이러한 靈物을 위협·저주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주술행위가 한, 두 건의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할 만하다고 본다. 이러한 주술행위는 크게 봐서 상당히 古形의 문화계통에 속할 것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주술은 특정의利害 또는 긴장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주술로 초자연적인 힘을 강압, 인간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종교는 사회구성원의 특정 이해와는 관계없이 체계적으로 안정된 ‘예배’를 통해 求하고, 윤리적 규범이 존중된다. 주술이 강압하는 대상은 惡鬼인데 비해, 종교적 예배의 대상은 神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종교의 시대에도, 예를 들어 카톨릭과 같은 종교집단에도 주술이 혼재하고 있다. 그러나 주술=주술사와 종교=司祭는 이론적으로 對稱的 관계에 있고, 종교사적인 발달과정도 주술이 보다 先行의 문화이다. 司祭에 의해 주도되는 종교는 보다 발전된 문화로 나타난다⁷⁾.

龜旨歌型 呪歌가 쓰이는 呪術이 보다 古形의 문화, 또는 보다 古代의 사회체제와 관련될 것이라는 점은 삼국시대의 왕권 정당화를 위한 문화체제의 비교·분석으로도 추정할 수 있다.

6) 《東國李相國集》卷 3, 七張의 左

7) Weber, Max, 1922, The Sociology of Religion (English Translation by E. Fischhoff, Boston, Beacon Press, 1963), 1~45쪽.

특히 6~9, 25~29 및 43쪽 참조

鄭璟喜, 1981, <檀君社會와 靑銅器文化>, 《韓國古代社會文化研究》(일지사, 1990)

43쪽 註 92, 93, 96 참조

삼국시대 왕권의 정당화를 위한 문화체계로 필자는 문자화된 고전, 특히 儒·佛·仙 三敎의 토착화 과정을 주목한 바 있다⁸⁾. 윤리적 규범을 특히 강조하는 이들 儒佛仙 三敎와 비교할 때 龜旨歌型 呪歌가 상징하는 주술은 초자연적인 힘을 위협·저주한다는 행위가 일종의 ‘沒倫理的’ 성격을 띠고 있다. <동명왕편>에는 노루를 저주하는 呪歌와 한 줄거리를 구성하고 있는 주몽왕의 또 다른 물윤리적인 이야기가 남아있다. 주몽왕이 송양왕의 비류국과 역사적 정통성을 다루는 과정에서 속임수로 비류국을 附庸國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하나는 “鼓角이 없어 沸流國使가 오면 王禮로 迎送할 수 없음”을 걱정한 끝에 “비류국의 鼓角을 훔쳐다가 (取鼓而來) 오래된 것처럼 킁킁한 칠을 했다”. 또 하나는 “썩은 나무로 기둥을 삼아 宮室이 1천년이나 묵은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⁹⁾.

이들 속임수의 물윤리성은 왕권 정당화체계로서의 유교나 불교 또는 仙道와는 확연히 다른 문화에 속한다고 하겠다. 적어도 유교나 불교 또는 仙道가 왕권의 정당화체계로 주류를 형성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막스 베버가 圖式化한 주술과 종교의 對比로 보나, 이 두 문화의 종교사적 先後關係로 보더라도 <東明王篇>에 나타난 일련의 문화적 내용은 상당히 古形의 문화유산임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원래 《三國遺事》에 남겨진 <駕洛國記>는 불교적 색채가 짙다.

首露王妃인 許后가 阿踰施國의 공주였다는 것은 필자가 前稿에서 지적한 것처럼 《勝鬘經》의 주인공인 勝鬘婦人이 ‘阿踰施國’의 왕비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伽耶(三國史記) 또는 伽耶(三國遺事)라는 이름도 석가모니가 得道成佛한 곳인 佛經 속의 ‘伽耶’와 같다. 원래의 이름은 ‘가야’가 아니라 ‘駕落’(삼국유사·駕洛國記) 또는 ‘加良’(삼국사기·強首傳)이었을 것이다. 許后가 ‘阿踰施國’ 공주였다던가, ‘伽耶’라는 이름은 아마도 金庾信의 출신지를 불교적으로 美化한 결과였을 것이다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儒佛仙의 고전문화와는 아예 다른 상당히 古形의 문화유산이 《三國遺事》에 남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이러한 古形의 문화가 가야·신라·고구려에 걸쳐 물윤리적 주술의 형태로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지

8) 鄭璟喜, 1988, <三國時代社會와 佛經의 研究>, 271~340쪽

鄭璟喜, 1988, <三國時代社會와 儒敎經典의 研究>, 앞의 책, 341~418쪽.

鄭璟喜, 1988, <三國時代社會와 仙道の 研究>, 앞의 책, 202~270쪽, 앞의 책.

9) 《東國李相國集》 卷 3, 七張 右

10) 鄭璟喜, 1988, <三國時代社會와 佛經의 研究>, 앞의 책 (1990), 321·323쪽.

금까지 인식되지 못한 중요한 사회·문화사적 사실이다. 다만 필자로서는 龜旨歌型의 呪歌가 왜 땅을 파거나 장대로 두들기는 행위를 동반하고 있는가, 그리고 동물저주가 우리 민속이나 세계 각지의 주술문화와 어떻게 관련되는가 하는 문제까지 언급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끝맺기로 한다¹¹⁾.

11) 그동안 龜旨歌에 관해서는 국문학사적 관심에서 본 연구가 많았다. 대체로 원시적 儀式謠 또는 巫俗과 관련된 呪歌, 또는 勞動謠 등으로 파악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海歌’가 龜旨歌와 같은 문학사적 흐름의 노래라는데 대해서도 언급돼 왔다.

박지홍, 1957, <龜旨歌研究>, 《국어국문학》 16호 (국어국문학회), 528~530쪽.

黃涇江, 1965, <龜旨歌攷>, 《國語國文學》 29號 (國語國文學會), 21~26쪽.

金性彦, 1986, <龜旨歌의 해석>, 《韓國文學史의 爭點》(集文堂), 82~90쪽.

金宗大, 1991, <龜旨歌의 性格과 傳乘樣相에 대한 小考>, 《중앙민속학》 3호(민속학연구소), 154~155쪽 참조.

Magical Chants and Animal Spirits

Kyong-Hee Chung
(The Hankook Ilbo, Former editorial writer)

In the Chapter named *Karak-kuki* of the historical record *Samkuk-yu-sa*, a song tells a story of divine visitation in this fashion : a crowd of roughly 200-300 gathered before a turtle to sing that they would burn it and eat it unless it brought their founder to them. Due to the people's singing, their legendary founder, King *Suro*, was said to have come down from the sky.

The song they sang is called *Kuziga*, in which a turtle is rhythmically threatened and given an ultimatum. In the *Samkuk-yu-sa* Record, it is written that a kidnapped wife of King *Suro* was rescued from a dragon by way of threatening a turtle.

A scholar named Lee Kyubo of the Koryo Kingdom quoted from "the History of the Old Three Kingdoms" the lines which state that King *Joo-mong*, the founder of the Kokuryo Kingdom, condemned and threatened a roe deer in the process of subjugating the Piryu Kingdom of King *Song-yang*. In ancient Korea, people believed that they could realize their wishes by making deals with animals, which were considered to have spiritual powers.

The *Kuiziga* song can be thought of as the most archaic of magic songs, or as their archetype. The culture that produced these songs is the most archaic of the Three Kingdoms Period, of which features were immoral.